

라성덕의 《우리 새 세대》 연구

민 병 욱*

차 례

I. 문제의 제기	III. 《우리 새 세대》의 사회문화사적 의미
II. 《우리 새 세대》의 구조와 의미 구조	IV. 결론

I. 문제의 제기

라성덕의 《우리 새 세대》(1989~1990)¹⁾는 김정일 후계체제시기(1980~1991)에서 체제모색기(1991~1998)²⁾로 이어지는 지점에 자리잡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텍스트는 1989년도 성과작으로 『1989년 성과 문학작품집』(문예출판사, 1989, 100~135쪽)에 먼저 발표되고 1990년 6월 『조선예술』(통권 402호, 14~24쪽)에 재수록된다. 본고에서는 편이상 『1989년 성과 문학작품집』에 수록된 텍스트를 원본으로 한다. 아울러 본문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말미에 쪽수를 괄호로 표기할 것이다.

2)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제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 196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체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주체시기를 김일성 유일체제기, 김정일 후계체제기, 김정일 체제모색기로 나누고자 한다. 김일성 유일체제기는 1967년 조선노동당 제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부터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식화 한 1980년 제 6차 당 대회 직전까지, 김정일 후계체제

고 있다. 그 지점은 「혁명적 문학예술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86.5.17)에서의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과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92.5.23)에서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연결하고 있는 지점³⁾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 시기들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들⁴⁾, 주제, 당성, 노동계급성, 민족적 특성, 현대성보다

-
- 기는 1980년 제 6차 당 대회에서부터 1991년 제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기 직전까지, 김정일 체제모색기는 1991년 제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부터 1997년 10월 당 총비서를 거쳐서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이 되기 직전까지로 나눈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김일성, 김정일의 문예정책과 이에 따른 문학예술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북한문학예술사에서 이미 공식화 된 것이기도 하다. 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시기구분에 따른 북한 희곡과 연극의 특성은 다음에서 상론한 바 있다. 민병욱 편저, 『북한 연극의 이해』, 삼영사, 2001
- 3) 1986년 5월 17일 문학예술부문 일꾼들과 한 김정일의 담화는 수령형상 문학예술의 계승, 발전과 숨은 영웅형상문학예술의 창작을, 1992년 5월 23일 발표한 김정일의 논문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제문학예술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의 경우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이며, 뒤의 경우는 1990년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에 대응하여 북한사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서에서 상론한 바 있다. 민병욱 편저, 『북한 연극의 특성과 역사적 인식』, 『북한 연극의 이해』, 53~57쪽.
- 4) 북한 문학예술의 기본 특성이나 성격을 설명하는 약호들은 주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민족적 특성, 현대성 등이 있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낡은 예술에서 혁명 예술로 개조 변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은 주체의 원칙, 당성·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 현대성의 원칙이다. 이 경우는 정성무의 『시대와 문학 예술 형태』(문예출판사, 1988)가 대표적이다.

둘째, 문학 일반론에서 북한 문학예술의 사회적 성격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민족적 특성, 현대성이다. 이 경우는 리동원의 『문학개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이 대표적이다.

셋째, 주체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다. 이 경우는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인동출판사 영인본)이 대표적이다.

북한에서 문학예술의 궁극적인 특성은 김일성주의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요약되지만, 문학 일반론이나 장르론에 따라서 설명하는 약호의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도 ‘인민성의 강화’이다. ‘인민성의 강화’는 ‘근로대중은 문화와 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입니다.’, ‘문학예술의 예술적 품위는 작품의 형식, 형상이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이라야 훌륭한 작품이다.’⁵⁾라는 비평적 도그마로 구체화 된다. 이러한 인민성의 강조에 따라서 문학예술을 비롯하여 희곡은, 첫째, 그 정치적 목적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나, 개별 작품의 수요자인 북한 주민들의 요구가 중시되고 있으며, 둘째, 혁명적 전통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작품 소재가 바뀌고, 셋째, 소재의 이러한 변화는 작품에서의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넷째, 이러한 현재성의 강조는 작품 자체의 다양화를 동반하고 있다.⁶⁾ 이에 본고는 인민성의 강화를 기본 원리로 하면서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선군사상을 연결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조 및 의미구조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우리 새 세대》의 구조와 의미구조

1. 새 세대와 그 생활모습의 형상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평양역 안내원 정옥이 지하 개찰구 문을 닫으려 하자 인민군 길남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나고 차가 떠난다.
- ② 새 세대 군인 윤철이 정옥에게 사과하면서 길남과 함께 내일 기차를 타기로 하여 역을 나간다.

5) 리수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령도사 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370쪽.
한중모,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5~106쪽.

6)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8, 29~30쪽.

- ③ 길남이 분계선 초소에서 분대원들을 구하고 눈을 잃은 분대장이 윤철임을 알리자 정옥이 감격하여 그들을 부르며 따라 나선다.
- ④ 이웃 여인 탄실이 정옥의 어머니 연화에게 남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중매를 하자, 연화도 정옥의 아버지 학근에게 그 혼처를 권한다.
- ⑤ 정옥이 부모에게 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윤철과 길남에게 자기 집을 여관으로 속이고 머물게 한다.
- ⑥ 여관이 아니고 정오의 집임을 알게 된 윤철이 떠나려 하자, 학근은 자신도 체대 군인임을 알리고 서로 출신 성분과 가정사를 이야기 하다.
- ⑦ 정옥이 부모에게 윤철과 약혼할 결심을 이야기하자 받아들여진다.
- ⑧ 길남이 약혼소개자가 되기로 하고 정옥이 윤철을 따라서 그의 고향으로 간다.

이러한 줄거리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새 세대들이 약혼에 이르는 과정을 형상화 하고 작품이다. 곧 텍스트의 형상⁷⁾은 새 세대들과 그 세대들의 생활 모습이다.

2. 사회적 상황의 극적 설정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담아내고 있는 새 세대의 실체는 무엇인가? 텍스트에서 새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 간의 상호관계는 등장인물표에서 제시되어 있다.

△ 나오는 사람

윤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예군인

정옥 평양역 안내원

학근 정옥의 아버지

7)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형상이란 ‘작품에 들어 온 생활 화폭’이다. 말하자면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형상이란 문학예술작품에서 창조되어서 담겨진 인간과 그 생활의 새로운 모습을 뜻한다. 문학예술의 독자성을 담보해 주는 이러한 형상의 특성은 진실성, 구체성, 생동성, 개성, 비반복성에 있다. 리동원, 『문학개론』, 86쪽 이하.

연화 정옥의 어머니

길남 윤철과 동행하는 조선인민군 상등병

탄실 이웃 녀인

그 밖에 려행하는 손님들

등장인물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 상호간의 관계는 신 세대 윤철, 정옥, 길남과 그 부모 세대 학근, 연화, 탄실이다. 등장인물의 이러한 세대관계는 텍스트에서 ‘항일투사들은 물론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들 세대, 전후복구건설을 한 우리 형님들 세대(120쪽)’로 구체화 된다. 북한사회에서 일반적인 세대 구분⁸⁾에서 본다면 학근, 정화, 탄실은 구 세대인 반면, 윤철, 정옥, 길남은 새 세대이다. 아울러 등장인물표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윤철이 보고줄거리로 제시하는 그 부모, ‘땅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땅 때문에 이국살이 피눈물을 흘렸으며 조국에 와서는 그 땅이 소중한 농사를 짓는’ 부모(118쪽)도 구 세대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구 세대와 새 세대를 전후복구건설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전후복구건설시기⁹⁾가 1953년 7월 휴전에서 1961년 9월 제 4차 당 대회 직전까지이므로, 부모세대는 ‘항일혁명투쟁,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경험한 세대이며, 자식 세대는 ‘사회주의

8) 북한사회에서는 4 세대로 구분하여 제 1세대는 혁명의 첫 세대로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중심으로 한 세대, 제 2세대는 조국해방전쟁을 경험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 친리마 영웅세대, 제 3세대는 사회주의건설이 이루어지고 난 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전후 세대, 제 4세대는 사회주의건설이 완성된 주체시기의 세대이다. 구세대는 제 1, 2세대이며, 신세대는 제 3, 4세대이다.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292~295쪽.

9) 북한사회 전체가 단일 해석공동체이기 때문에, 김일성 및 김정일의 영도사와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여 북한역사는 ①항일무장혁명투쟁시기(‘10~’45.8), ②평화적 건설시기(‘45.8~’50.6), ③조국해방전쟁시기(‘50.6~’53.7), ④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53.7~’61.9), ⑤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61.9~’67.7), ⑥주체시기(‘67.7~현재)로 구분되고 있다.

전면적 건설시기, 주체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곧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이 구 세대와 새 세대 구분의 기준이다. 이러한 세대 구분을 통하여 텍스트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작품의 컨텍스트(사회적 연관 의미)로 설정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구 세대와 새 세대의 생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3. 새 세대의 약혼과 선군사상

텍스트는 구 세대와 새 세대 간의 생활모습을 담아내기 위하여 그 세대들 간의 공통인물로 ‘군인’을 설정하고 있다. 텍스트에서 군인은 윤철, 길남, 학근이다.

㉠ **길남** 쉬, 떠들지 말라요. 한마디만 하자요. 저 우리 분대장동지가 어떤 사람인줄 아오. 동무두 신문을 봤게지요. 3월 21일부 《로동청년》에 실린 《총잡은 새 세대》

정옥 예?!...

길남 지난봄 분계선에서 놈들의 악랄한 도발책동때 여섯명의 우리 분대원들을 구출하구 놈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린 장운철, 장운철분대장이란 말이요!

정옥 어머니!

길남 난 그 분대원이구

정옥 아니, 그럼 저 동무가?!...(105쪽)

㉡ **학근** 내 지금은 기계공업부문에서 국장일을 하지만 나도 같은 세대군인, 락동강까지 갔다 온 근위상사야.

윤철 그렇습니까. (경례를 붙이며) 근위상사동지! 근위중사 장운철은...

인용에서 윤철은 ‘분계선에서 놈들의 책동을 짓부순’ 분대장이면서 ‘눈을 잃은’ 영예군인’이며, 길남은 그 분대원이면서 상등병이고, 학근은 ‘조

국해방전쟁'에 참여한 '근위상사'이다. 윤철이 주인공이며, 학근이 아버지로서 여주인공 정옥과의 결혼을 허락하는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텍스트에서 '군인'은 남녀주인공을 약혼에 이르게 하는 지배적 계기가 된다. 아울러 윤철이 '영예군인'이라는 것은 정옥과의 약혼이 이르도록 하는 극적 사건진행의 지배적인 모티브가 된다. 텍스트의 제 1장 끝부분에서 윤철이 '영예군인'임을 뒤늦게 알고서 정옥은 부모에게 약혼 승낙을 얻고 그의 고향으로 함께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정옥의 심정이 방백으로 울린다. 《장윤철! 장윤철! 저 동무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흔들어놓은 그 분대장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 동무를 이렇게 대하다니...》

△ 모대기던 정옥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던지 《상등병동무! 상등병동무》 하고 부르며 따라나기는데 무대 어두워진다.(106쪽)

㉡ △ 정옥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떠나는 승용차의 경적소리

정옥 어머니! (떨어져가는 경적소리에 더욱 놀라며) 야, 이걸 어찌나... (창가로 달려가 떨어져가는 차를 바라본다. 순간 가슴속에 런민의 정이 끓어올라 안절부절하며 모대긴다)

△ 그의 심정이 방창으로 울린다.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온

값높은 그 삶을

내 미처 몰랐네

꿈많은 저 동무

한생을 어이 갈가

아 내 과연

도울길 없는가

정옥 야, 넌 어찌면...(의자에 쓰러진다.)

△ 정옥 뜨겁게 고동치는 마음 달랠 길 없어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124~125쪽)

㉔ △ 정옥, 길남 나간다.

△ 떠나는 그들의 축복을 담아 방창이 울린다.

방창 아 아름다워라 값높아라
 우리 당의 품에 자란 새 세대
 아름다운 꽃들이여!

학근 여보, 이제 저애들이 우리의 큰 기쁨으로 될거요.

연화 아무럼요.

학근 정말 당신이 우리 정옥일 잘 키웠소.

연화 아니웬다. 저애들을 진짜로 키운것은 어머니우리당이였수
다!

학근 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의지로 자라난 우리의
새 세대들이지! ... 여보, 정말 기쁘구려.(132쪽)

㉕의 방백은 정옥이 윤철이 ‘눈을 잃은 영예군인’임을 알고 난 순간(텍스트의 줄거리 ③)에 이루어진다. 그 방백은 그녀가 ‘평양을 떠나서 청수로 가는 급행열차’를 못타게 한 윤철이 ‘우리들이 마음을 그렇게도 흔들여놓은 그 분대장’임을 알고 난 뒤 정옥이 행한다. 물론 윤철과 길남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관객들에게 전달된 정옥의 심정¹⁰⁾으로, ‘영예군인’에 대한 ‘철도 규정’을 이유로 하여 ‘세도, 특세’를 부린 것(111쪽)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것이다. 그 부끄러움으로 정옥은 텍스트의 줄거리(④⑤⑥)에서와 같이 윤철과 길남을 여관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

㉖은 정옥이 윤철과의 결혼, 곧 그의 ‘두 눈’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첫 부분(㉗)이다. 이 부분은, 텍스트 줄거리에서 본다면 윤철이 정옥

10) 북한 극이론에서 방백을 ‘독백의 일종으로서 두 사람 이상의 인물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닌, 그러나 관중들에게는 전달할 목적으로 혼자말로 하는 대사, 물론 상대 인물과 관계되는 말이지만 상대는 못 듣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관중들에게만 그 심리와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옥의 방백은 관객들에게 군인의 ‘특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다. 강진, 『주체 극문학의 새 기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275쪽.

의 집을 여관이라고 속인 사실을 알고난 뒤 그녀 아버지 학근의 승용차를 타고 고향으로 떠나려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정옥은 텍스트의 줄거리 ⑥에서 윤철과 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로부터 감동을 받는다. 정옥은 ‘우린 전 세대가 가꾸어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 먹는 벌나비, 그런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다’는 ‘윤철의 말에 충격’(120쪽)을 받고, ‘네 비록 놈들에게 눈을 빼앗겼지만 내가 네 눈을 대신해줄테니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겠다던 그 꿈만 버리지 말고 어서 돌아오너라’고 하는 윤철의 어머니 편지(121쪽)에 감동을 받는다. 그 충격과 감동으로 정옥은 ‘순간 가슴 속에 런던의 정이 끓어 올라 안절부절하며 모대긴다.’ 정옥의 이러한 심정은 스스로의 독백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되는 방창’¹¹⁾으로 표현된다. 그 방창의 내용은 ‘아 내 과연 도울길 없는가’하고 ‘뜨겁게 고동치는 마음’

11) 방창은, 『문학예술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에 따르면, ‘가극을 비롯하여 영화, 연극, 무용 등의 예술 종류의 작품들에서 등장인물이 아닌 제 3자가 무대 밖에서 하는 성악 연주 방식’이면서 ‘무대 뒤에서 이야기의 줄거리에 얽힌 인물들의 관계, 갈등, 상황, 사건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 대변, 평가하는 능동적인 수단’이다. 방창은 무대 노래가 할 수 없는 서사적인 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적인 묘사나 서정적인 묘사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창은, 첫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극적 생활을 남녀의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연주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 전달할 수 있으며, 둘째, 등장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낼 수 있고, 셋째, 배우의 연기에 어울리게 연기를 음악적 형상으로 받쳐줄 수 있어야 하며, 넷째, 막과 막, 장과 장 사이의 연결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창은 가극에서는 기본적 형상수단이 되지만 연극에서는 보조적 형상수단으로 작용한다. 곧 연극에서 방창은, 가극에서와는 달리, ‘성격창조의 수단으로서 인물의 성격과 감정세계를 정서적으로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며 등장인물의 운명선을 따라 가면서 극 발전을 힘있는 추동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대사와 행동으로 극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방창은 ‘독방창으로 짧게 올려주는 것’이 좋고 ‘절거화 된 가사’로 불리워질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문화체육부, 1995, 361~427쪽.), 강 진, 『주체 극문학의 새 기원』(276~278쪽.), 김준규, 『피바다식’가극의 방창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4)

인 바, 정옥은 윤철의 ‘두 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㉔은 정옥이 윤철과 함께 그의 고향으로 떠나는 부분(㉔)이다. 정옥과 윤철이라는 새 세대를, ‘당의 품에 자란 새 세대’, ‘김정일동지의 의지로 자라난 우리의 새 세대’라고 하면서 막이 내린다. 곧 새 세대는 ‘어머니 우리당에서 키운 것’이라는 의미에서 텍스트는 김정일과 당과 새 세대 간을 사회정치적 생명체¹²⁾로서 담아내고 있다.

㉑에서 ㉒을 거쳐서 ㉔에 이르는 과정은 영예군인 윤철과 지하철 역 안내원 정옥 간의 약혼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진행시키는 지배적인 모티브는 윤철이 영예군인이라는 사실과 정옥이 그 사실을 모르다가 알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 세대 간의 약혼은 ‘김정일의 의지’이며, ‘조선인민군병사의 영예’라는 것이다.

△ 이때 치마저고리를 갈아입은 정옥이 연화와 함께 나온다.

(너무도 달라진 정옥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분대장동지한테 팔
선너구냐! (감격하여 흐느끼며 만세! 만세!... 고맙습니다!

학근 이사람아... 뭘 그러나.

길남 이런줄은 몰랐습니다. 난 정말 우리 조선인민군병사의 영예가
이렇게도 큰 줄은 몰랐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병사들이 알면
큰 힘이 됩니다. 원자탄보다 두 더 큰 힘이 됩니다!...(길남 격
한 심정으로 정옥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하며) 우리 군대의
아름다운 꽃이며 참된 동지인 정옥동무! 조국을 위하여 헌신복
무하겠습니다!(흐느낀다).(131~132쪽)

12)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개념이 가능해진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통일적 관계로 묶음으로써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 사회를 하나의 가족단위로 제도화 하고 그 제도화된 사회적 도덕률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은 그의 저서 『주체문학론』에서 「4.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의 첫 소항목을 “1)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우리 문학의 형상 원천이다.”라는 논리의 틀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 북한 문학예술은 유일사상의 우상숭배에 이바지하는 정치종속적 문학예술이 되고 있다.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101~120쪽.

인용은 길남을 통해서 윤철과 정옥 간의 약혼이 ‘김정일의 의지’이며, ‘조선인민군병사의 영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김정일과 당과 새 세대를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묶고 ‘전 세대들이 가꾸어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 그런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현실과 싸우는 윤철과 정옥의 운명을 형상화 하고 있다. 되돌려서 말한다면 윤철과 정옥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서로의 결혼과 운명을 맡기고 혁명적으로 살아가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텍스트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인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의 체험자로 형상한다’는 선군혁명문학¹³⁾에 가까이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4. 새 세대의 조선민족제일주의

텍스트가 구 세대와 새 세대 간의 공통인물로 ‘군인’을 설정하고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학근 그건 억지야. 억지란 말일세. 난 자네를 하루가 아니라 열흘, 보름이라도 잡아두고 탁원으로 꽃핀 이 수도의 행복을 다 누

13) 선군혁명문학은 1990년대 북한 통치이데올로기 선군사상(2004~)의 문학예술 형태이다. 북한에서 선군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 1월 1일 『로동신문』의 사설, 「위대한 선군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자」에서부터이며, 2004년에 이르러서야 통치이데올로기로 체계화 된다. 이에 문학예술에서 선군혁명문학이 개념화 되고 규정된다. 주체사실주의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초점을 둔다면, 선군혁명문학은 현실과 환경을 지배하고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간성격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문학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에 힘입고 있다. 박현중 외, 「김정일 시대의 북한정치체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4-11, 2004, 35~48쪽, 오일환, 「북한의 선군정치의 현황과 쟁점 분석」, 『亞太 쟁점과 연구·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4, 95~118쪽, 김성수, 「김정일 시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27』,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4), 206~230쪽,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편,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리도록 하겠네.

정옥 (기뻐서) 아버지, 그럼 내가 휴가를 받고 함께 다니겠어요.

윤철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전 아직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학근 뭐 권리가... 그럼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던말인가. 전쟁때도 아닌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일요일마다 대성산, 모란봉으로 춤추며 다니는 이 때 조국에 눈을 바친 자네같은 사람들에게 그 권리가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권리가 있던 말인가?

윤철 국장동지, 이리저 마십시오. 그래 국장동진 그 권리를 누리자고 락동강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20대 청춘시절에 그 권리를 누렸습니까 못누렸지요. 아니 안누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 전 세대는 그 누구도 청춘시절을 향락으로 보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항일투사들은 물론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들 세대, 전후복구건설을 한 우리 형님들 세대, 그들은 다 청춘을 조국에 바쳤기에 향락이라는 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왜 우리 세대만은 그걸 누리야 합니까. 오늘 우리 세대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세대들이 청춘을 바쳐 창조한 재부우에서 향락을 누릴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시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가꾸어 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 그런 벌나비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 **정옥** 윤철의 말에 충격을 받고 학근을 바라본다.(119~120쪽)

인용에서는 구 세대와 새 세대는 다음과 같은 변별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구 세대 VS 새 세대

향락을 알지 못함 VS 향락을 누리

청춘을 조국에 바침 VS 일요일마다 대성산, 모란봉으로 춤추며 다님

청춘을 받쳐서 부를 창조함 VS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

구 세대와 새 세대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의 기준은 향락이다. 곧 구

세대는 조국에 청춘을 받쳐서 부를 창조한 세대이며, 새 세대는 그렇게 창조된 부를 바탕으로 향락을 즐기는 세대이다. 새 세대의 이러한 향락은 주인공 윤철과 정옥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포를 지닌다.

윤철과 정옥은 같은 새 세대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자질과 변별자질을 가지고 있다.

윤철 VS 정옥

- 1.성 : 남성 VS 여성
- 2.나이 : 미혼 총각 VS 결혼적령기 여성
- 3.현직 : 영예군인 VS 평양역 안내원
- 4.전직 : 분계선 초소 분대장 VS 사료청 조직원
- 5.거주 : 농촌거주 VS 평양 거주
- 6.가족관계 : 외아들 VS 외딸
- 7.부모존재 : 부모생존 VS 부모생존
- 8.부모의 현직 : 농민 VS 기계공업부문 국장
- 9.부모의 전직 : 해외귀국동포 VS 제대 군인-근위상사
: 전후복구건설 후 귀국 VS 전후복구건설 참여
- 10.행동특성 : 분계선에서 두 눈을 잃음 VS 시간이 있을 때 마다 놀러 다님
- 11.지향행동 : 농산기사 VS 윤철과의 결혼

‘부모생존-미혼’이라는 공통자질과 ‘남성-총각/여성-처녀’라는 변별자질에서 본다면 윤철과 정옥은 결혼적령기의 새 세대라는 동일한 의미차원에 있다. 반면 윤철과 정옥은 ‘현직, 전직, 거주, 가족관계, 부모관계, 행동특성, 지향성’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북한사회가 계급사회이므로, 그 차이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가족관계이다.

윤철의 부모는 전후복구건설시기(1953.7~1961.4) 이후 북한으로 귀국하여 농민(118~120쪽)으로 살아간다. 북한주민 조사사업¹⁴⁾에서 본다면, 그의 부모는 ‘동요계층’의 ‘일본귀환민’에 속한다. 아울러 남한에 인척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동향 감시 대상’이면서 ‘교양 개조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족의 계급적 위치에서 본다면, ‘분계선에 근무하는 근위 중사’로서 ‘영예군인’이 된 것은 그가 ‘핵심계층’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곧 윤철은 ‘동요계층’의 출신성분에서 ‘핵심계층’의 사회 성분으로 계층 이동을 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계층이동은 ‘당성’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 바, ‘지난 봄 분계선에서 분대원들을 구출하고 두 눈을 잃은 총잡은 새 세대’(105쪽)로서 윤철은 ‘군사복무가 끝나면 농산기사가 되어 우리 군에도 벼마다 설레이게 하리라는 꿈을 안고 살았는데 놈들이 내 눈을 빼앗아갔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119쪽)’ 그 꿈을 이루겠다는 행동의지를 가지고 있다. 윤철의 이러한 행동의지는 귀향으로 실천된다.

윤철 길남동무! 난 정말 행복해

길남 뭐가요?

윤철 보라구, 어딜가나 제 집, 제 고향 사람들속에 살고 있지 않나.
아마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행복을 다
는 모를거야!

길남 정말 그렇습니다.(122쪽)

윤철의 귀향은 단순히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사회주의사회의 행복’을 모른다는 의미

-
- 14) 북한의 주민성분조사사업은 1958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에서 시작하여 1983년 ‘공민증 갱신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그 가운데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실시된 주민재등록사업에서 모든 주민들을 직계 3대와 처가 및 외가의 6촌까지 내사하여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1967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실시된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에서 계층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3계층 51부류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에서 본다면 일본귀환민은 동요계층에 속하며, ‘동향 감시 대상’이면서 ‘교양 개조 대상’이 되며, ‘영예군인’은 핵심계층이 된다. 동요계층에서 핵심계층으로의 계층이동은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에 힘입은 바 크다. 정용하 외,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정치쟁점』,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111~126쪽, 최 명 편저, 『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5, 265~296쪽.

차원에 있다. 곧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회주의사회의 행복을 알지만 사회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사회의 행복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차원에서 본다면 윤철의 귀향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¹⁵⁾에 가깝게 놓여있다.

윤철과는 달리 정옥은 우선 그 출신성분이 다르다. 정옥의 아버지 학근은 ‘락동강에 피를 뿌리구 대동강반에 땀을 묻으며 전쟁을 이기구 사회주의를 건설하던’(129쪽) 제대 군인이면서 현재 ‘기계공업부문 국장’이다. 그 출신성분에서 본다면 ‘핵심계층’으로서 정옥은, 타 계층과 분리되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 그녀의 집은 ‘인민군대가 다 드는 보통려관’이 아니라 ‘색텔레비, 랭동기, 쏘파, 선풍기에 세상에 좋은 가구들로 쪽 꾸려 놓은’ 호텔(113쪽)과 같으며, 정옥은 ‘사로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15) 1986년 7월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곧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강조한 것은 주체사상의 실천이론으로서 조선민족제일주의이다. 이어서, 1989년 12월 28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에게 한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정의하여 문학예술 창작의 기본이론으로 삼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민대중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91)를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으로 제작할 것을 지시하여 1992년 《민족과 운명》 창작 국가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가 제일이라는 정신’으로 이데올로기화 된다.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화는 동시대 사회주의의 위기에 관련된다. 1991년 김일성은 노동신문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켜서 완전 승리를 쟁취하자고 역설한다. 사회주의체제의 강화 발전은, 1990년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을 뜻하는 ‘사회주의 위기’ 혹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에 대응하여 유일사상체제와 후계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서 김정일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내무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 세우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사회주의체제강화 발전(신년사)』, 『로동신문』, 1991.1.1, 김정일,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1쪽

에 속해 있고 ‘평양역 안내원’인 노동계급¹⁶⁾이다. 이러한 계급적 위치에서 본다면 정옥은, 이미 구 세대에 속하는 아버지 학근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시간만 있으면 대성산, 모란봉으로 춤추며 다닌다’(127쪽)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특성에 관해서 구 세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 **연화** 하루도 몇 번 옷맵시나 볼 줄 알자...(107쪽)
- ㉡ **탄실** 뭐니뭐니해도 지금 총각들은 인물이 첫째래요. 왜 안그러겠어요. 이 좋은 세월이 얼싸한 평양에서 꽃같은 처녀를 옆에 척 끼고 구경을 한번 가두 그렇구...(107쪽)
- ㉢ **학근** 허지만 우리 정옥일 놓고 보면 걱정되는게 많아. 이젠 시집 갈 나이가 다 된게 철이 없거든. 그제 제 치장하고 저 좋은 생각만 하니.(109쪽)
- ㉣ **학근** 당신두 거 외딸이라고 너무 끼고 어자어자하지 마오. 골라 입히구, 골라 먹이구... 젊어서 고생한 자식은 사람질해두 그제 호의호식만 하며 자란 자식은 사람질 못해(109쪽)
- ㉤ **학근** 어떻게 되어 그러는지 모르겠거든. 내 참... 학교 다닐 땐 순진하던게 사회 나오더니 세도부터 먼저 부리니... 어떻게 되어 봉사일군인 네가 그런 특세야! 응?(111쪽)
- ㉥ **연화** 뭐라구. 농촌지원 며칠을 나갔다가도 평양 떠나선 못살겠다구 하던 네가 아니야.(126쪽)
- ㉦ **학근** 전쟁시기나 전후직후라면 술한 영예군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바친 여자들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지만 요새 행복만을 아는 너희들 또래들은 달라. 일시적 흥분이나 동정으로 한 결심때문에 일생을 후회할 수 있다.(127쪽)

16) 핵심계층은 전체 주민의 약 28%에 해당되며, 당·정·군의 간부로 등용되며,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그 계층에는 노동계급, 조선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영예군인 등이 12부류가 있다. 정옥은 그녀의 아버지 학근이 ‘당에선 널 노동계급이 되라구 철도제복을 입혔다’(11쪽)라는 말과 같이 핵심계층의 노동계급 부류에 속한다.

인용에서 새 세대의 행동특성은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직업, 재산 인물 그런 타산’(128쪽) 속에 있다. 이러한 행동특성을 가진 정옥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윤철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통하여 정옥은 윤철과의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 윤철 (…………) 그런데 우리 세대, 왜 우리 세대만은 그걸 누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 세대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세대들이 청춘을 바쳐 창조한 재부우에서 향락을 누릴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시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린 전세대가 가꾸어 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 그런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 정옥 윤철의 말에 충격을 받고 학근을 바라본다.(119~120쪽 발췌인용)

㉡ 정옥 (걱정을 누르고 애원을 안고)(…………) 허지만 난 오늘 똑똑히 알았어요. 그 분대장동무를 보구서… 내가 시간만 있으면 대성산, 모란봉으로 춤추며 다닐 때 저분계선 언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새우던 저 동무가 왜 두눈을 조국에 바치고도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루밤 남의 신세를 지는것까지 마다하는지 알았단 말이예요! 아버지! 나도 이젠 남들이 가꿔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127~128쪽 발췌인용)

㉠에서 ‘충격’으로 정옥은 ‘윤철의 두 눈’이 되겠다는, 곧 결혼을 결심하고 ㉡에 이르러서 부모에게 약혼 승낙을 받는다. 새 세대 정옥의 이러한 변화는 ‘전세대가 가꾸어 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에서 나아가서 ‘남들이 가꿔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결의에 이른다. 그 결의를, 구 세대는 ‘락동강에 피를 뿌리구 대동간반에 땀을 묻으며 전쟁을 이기구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그때 조선의 정신이 너희,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고동치고 있구나!’(129쪽)

하면서 세대를 이어주는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으로 수락하기에 이른다.

정옥의 이러한 수락은 그녀의 약혼이 이념적 조건¹⁷⁾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곧 정옥과 윤철의 약혼은 핵심계층과 핵심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있는 일종의 족내혼(endogamy)으로서 당성이라는 이념적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울러 ‘대학을 나와 큰 연구기관의 중한 일을 보다는 사람’(108쪽)이 약혼상대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정옥의 약혼은 동시대 북한사회의 현실적 조건들- 학벌, 직업, 가정배경, 도시거주 등과 풍습적 조건들- 외모, 행실, 건강 등을 배제한 이념적 조건의 선택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윤철과 정옥 간의 이념적 약혼을 통하여 새 세대를 단순히 자기 행복을 차는 타산적인 향락세대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 세대의 사회주의 건설정신을 이어받아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개척하려는, 해야 하는 것으로 훈육하고 있다.

5. 고향농촌의 극적 공간과 숨은 영웅형상

텍스트에서 정옥이 윤철을 만나고 약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극적 사건 진행은 평양에서 이루어진다. 텍스트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극적 공간¹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된다.

17) 198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풍속적 조건, 이념적 조건, 현실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풍속적 조건에는 외모, 행실, 건강, 이념적 조건에는 당성, 출신성분, 권력배경, 현실적 조건에는 학벌, 직업, 가정배경, 도시거주 등이 있다. 아울러 그 제약도 있는 바, 도시남자와 농촌여성이 결혼하면 농촌에서 살아야 하며, 평양 여성이 그 이외 지역 남성과 결혼하면 남성의 거주지로 옮겨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촌지원 며칠을 나갔다가도 평양 떠나선 못살겠다구 하던’ 정옥의 약혼에는 현실적 조건이나 풍속적 조건이 배제되어 있다. 동시대 북한사회의 혼인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서를 근거하고 있다. 정용하 외,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정치쟁점』, 111~126쪽, 최 명 편저, 『북한 개론』, 265~296, 339~352쪽.

18) 극적 공간의 3층위는 소련 콤포 아카데미 편집부 엮음, 『희곡의 본질과 역사』(김만수 역), 제 3세계문화사, 1990, 10쪽에서 나눈 바 있다.

시대적 공간 : 현대 평양

허구실연적 공간 : 평양역 지하개찰구(제 1장), 정옥의 집(제 2장)

실제 상연공간 : 평안북도예술단이 처음 공연한 실제 공간

텍스트에서 ‘평양’은 극적 배경으로서의 공간이며, ‘평양역 지하개찰구, 정옥의 집’은 사건 진행의 공간이다. ‘무대 평양역 지하개찰구’, ‘△ 무대는 평양의 어느 한 거리에 자리잡은 정옥의 집이다.’와 같이 고정 공간은 공간적인 세부사항이 상세히 묘사되고 기술되지 않은 채, 단순히 극작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말로써만 이루어진 공간 장식⁹⁾으로 나타난다. 극적 사건진행은 고정 공간이 아니라 공간 이동으로 구체화 되는 바, 윤철은 ‘일본→ 농촌 → 분계선→ 평양→ 농촌’으로, 정옥은 ‘평양→ 윤철의 농촌’으로의 공간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이동에서 본다면 윤철과 정옥은 ‘일본/조국, 고향/평양, 분계선/평양’ 공간으로 대립된다. 첫째, 극적 공간 ‘일본/조국’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 있다.

㉠ **윤철** 예, 우리 부모님들은 땅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땅 때문에 이국살이 피눈물을 흘렸으며 조국에 와서는 그 땅이 소중한 농사를 짓고 나도 그 땅을 지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18쪽)

㉡ **윤철** 길남동무! 난 정말 행복해

길남 뭐가요?

윤철 보라구, 어딜가나 제 집, 제 고향 사람들속에 살고 있지 않나. 아마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행복을 다는 모를거야!

길남 정말 그렇습니다.(122쪽)

에서 ‘일본/조국’의 대립 공간은 ‘땅의 상실/땅의 획득, 타향/고향, 이국살

19) V.Klotz, 『현대희곡론』 (송윤섭 역), 탑출판사, 1981, 35쪽.

이/조국, 피눈물/영예군인, 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 불행/행복'과 같은 대립적 의미 차원에 있다. 따라서 극적 공간으로서 '조국'은 '평의 획득, 고향, 영예군인, 사회주의사회, 행복'이 약호화 된 공간이다.

둘째, 극적 공간으로서 '평양'과 '고향'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 있다.

㉠ **길남** 야, 분대장동진 앞을 못보니까 잘 모르누만요. 새로 일떠선 광복거리 살림집들이 얼마나 얼싸한지 압니까. 색텔레비, 랭동기, 쏘파, 선풍기에 세상에 좋은 가구들로 쪽 꾸러 놓았는데 려관은 그 사람집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윤철 그래 야, 광복거리 새집들을 텔레비라도 꼭 보자고 했는데...

△ 연화 맥주와 과실을 들고 들어온다.(113쪽)

㉡ **윤철** (...) 언제인가 내 중학교시절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척박한 우리 농장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농장원들의 살림살이를 보시고 몹시 가슴아파하셨습니다. 산간마을사람들에게 아직도 흰쌀밥을 못먹인다고... 그때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마다 논이 적은 우리 산골농장에 별방입쌀을 보내주시는데 지금도 그 배려를 그냥 받고 있습니다. 전 이게 늘 마음에 걸려 이제 군사복무가 끝나면 농산기사가 되어 우리군에도 벼마다 설레이게 하리라는 꿈을 안고 살았는데 놈들이 이렇게 내 눈을 빼앗아갔습니다.(119쪽)

㉢ **학근** 그건 억지야. 억지란 말일세. 난 자네를 하루가 아니라 열흘, 보름이라도 잡아두고 락원으로 꽃핀 이 수도의 행복을 다 누리도록 하겠네.(119쪽)

인용에서 극적 공간 '평양'은 '색텔레비, 랭동기, 쏘파, 선풍기에 세상에 좋은 가구들로 쪽 꾸러 놓은' 곳이며 '맥주와 과실'이 있는 '락원으로 꽃핀 행복'의 수도인 반면, '고향'은 '흰쌀밥을 먹지 했던' 곳이지만 아직

도 ‘벌방입쌀을 보내주시는 어버이수령의 배려’를 받고 있는 곳이다. ‘평양’과 ‘고향’은,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이라는 극적 상황²⁰⁾ 속에 있으므로 ‘부/가난’이나 ‘낙원/실낙원’의 대립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극적 공간이 극적 인물들의 운동과 육체적 관련 기호²¹⁾로서 작용한다면, ‘평양’은 이미 ‘낙원’이므로 ‘고향’은 ‘어버이수령님의 배려가 마음에 걸려 설레이게 하는 꿈을 안고 살 수 있는’ 곳, 곧 ‘낙원’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다. ‘고향’은 적어도 윤철이 ‘군사복무가 끝나면 농산기사가 되어 우리군에도 벼마다 설레이게 하리라는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셋째, 극적 공간으로서 ‘분계선/평양’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 있다.

정옥 (걱정을 누르고 애원을 안고)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들을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 새 세대들이 이젠 행복해지니까 제 생각부터 하는 버릇도 생겼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말이예요. 허지만 난 오늘 똑똑히 알았어요. 그 분대장동무를 보구서... 내가 시간만 있으면 대성산, 모란봉으로 춤추며 다닐 때 저 분계선 언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새우던 저 동무가 왜 두 눈을 조국에 바치고도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루밤 남의 신세를 지는 것까지 마다하는지 알았단 말이예요! 아버지! 나도 이젠 남들이 가꿔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127~128쪽)

인용에서 ‘분계선/평양’은 극적 인물 윤철과 정옥이 만나기 직전에 살았던 공간, 곧 그와 그녀가 관계 속의 운동²²⁾을 하기 직전 공간이다. 윤철과 정옥이 관계를 맺기 직전의 공간 ‘분계선’과 ‘평양’은 그 인물들의

20)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II-2. 사회적 상황의 극적 설정>에 상론한 바 있음.

21) J.T.Styan, *Drama, Stage and Aud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35~36, 194~195.

22) 삶은 인간관계 속의 운동이며, 모든 문학텍스트는 관계 속의 삶을 다루고 있다. 크리슈나무르티, 『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정현중 역), 정우사, 1981, 7쪽.

특성을 뒷받침하는 구속적 타율적 기호²³⁾이다. 곧 ‘분계선’은 윤철의 특성을, ‘평양’은 정옥의 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분계선’은 윤철을 ‘언 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새우고 두 눈을 조국에 바치고도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룻밤 남의 신세를 지는 것까지 마다하게’ 만든 공간이며, ‘평양’은 정옥을 ‘제 생각부터 하는 버릇’ ‘시간만 있으면 대성산, 모란봉으로 춤추며 다니’도록 만든 공간이다. 서로 다른 이러한 삶의 공간에서 서로 달리 살아 온 윤철과 정옥은 ‘평양’에서 만남으로써 관계 속의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곧 ‘평양’은 관계 속의 공간이며, 그 공간은 ‘남들이 가꿔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라는 각성의 공간이 된다. 따라서 ‘조국’의 ‘분계선’은 ‘제 생각부터 하는 이기주의’의 ‘평양’을 각성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첫째, 둘째, 셋째에서와 같이 텍스트에서 극적 공간은 ‘일본/조국’을 ‘자본주의사회의 불행/사회주의사회의 행복’으로 대립시키고 ‘평양’을 ‘낙원의 수도’로 설정하면서 ‘분계선’을 통하여 ‘조국에의 충성’을, ‘고향’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하고 있다.

극적 공간의 이러한 의미론적 관계 속에서, 윤철과 정옥의 관계는 ‘평양’에서 ‘고향농촌’으로 공간이동을 함으로써 끝맺는다. 그 공간이동은 윤철과 정옥이 만나서 함께 ‘전세대가 가꾸어 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다’(120, 128쪽)는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목적지 ‘고향농촌’은, 윤철에게는 ‘군사복무가 끝나면 농산기사가 되어 우리군에도 벼마다 설레이게 하리라는 꿈’,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겠다던 그 꿈’(121쪽)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곳이며, 정옥에게는 ‘낙원의 행복’, ‘제 생각부터 하는 버릇’, ‘직업, 재산, 인물, 그런 타산’을 버리고 ‘일생이 가시덤불이라고 해도 즐거울’(128쪽)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향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윤철과 정옥은

23) 질 질라르, 『연극이란 무엇인가』, (윤학노 역), 고려원, 1988, 114쪽.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묵묵히 받쳐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애국자’이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모와 실천적 모범’ 인물²⁴⁾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고향농촌의 극적 공간지향성을 통하여 동시대 숨은 영웅을 형상화 하고 있다.

III. 《우리 새 세대》의 사회문화사적 의미

텍스트는 1980년대 새 세대 문제를 통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선군 사상을 바탕으로 숨은 영웅을 형상화 하고 있다. 동시대 북한사회에서

24) 이러한 인물을 숨은 영웅이라고 한다.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은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을 문학예술부문에서 실천한 것이다.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은, 1980년 6월 당 제 6차 대회에서 평가된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운동으로서, 이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공산주의적 사상개조운동으로서 주민들의 사상교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1981년 3월 전국문화예술인열성자대회가 소집되면서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로 구체화 된다.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에서 숨은 영웅이란 김일성과 함께 투쟁한 항일혁명투사 등과 같은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묵묵히 받쳐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애국자들, 공로자들’, 곧 사회주의건설시기 이후에 활동했던 과학자, 기술자 등 사회적 공로자들, 하급당원을 비롯하여 일반 보통 주민들이다.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은 그러한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모와 실천적 모범’을 형상화 한 것이다. 그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모와 실천적 모범’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지향과 열정’이므로 숨은 영웅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 받쳐 투쟁하는 참된 전위투사로서 주체형의 인간’이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축하문 : 조선작가동맹 제 3차 대회 앞』, 『조선문학 · 388』, 1980.2, 9, 12쪽, 김정웅, 이기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이론 : 문예학 3』, 사회과학출판사, 1996, 158쪽, 한중모, 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105~106쪽, 위찬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공산주의자적 사상개조운동』, 『근로자 454』, '80.2, 57~58쪽.

가장 중요한 인민성의 강화인 바, 곧 새 세대문제로 집약된다. 새 세대는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시기’(1961~1967)에 태어나서 ‘주체시기’(1967~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다. 새 세대에 관한 관심은 그 세대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지배체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과 아울러 그 세대의 사상적 일탈문제가 정치범과 경제범만큼 북한사회 내부의 병폐현상²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시대 북한사회에서는 인민성의 강화를 기본 원리로 하는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과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운동으로 대두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사적 문맥 속에서 1989년 텍스트 《우리 새 세대》가 창작된다. 텍스트가 새 세대문제를 통하여 ‘농산기사’의 꿈을 가진 ‘조선인민군 영예군인’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적 문예사상연구모임’화 된다. 그 모임은 텍스트가 ‘새 세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 창조를 한 단막극’²⁶⁾이라는 의미에서 설치된 것이다.

25) 정용하 외,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정치쟁점』, 153쪽

26) 텍스트는 1989년도 성과작으로 『1989년 성과 문학작품집』(문예출판사, 100~135쪽)에 먼저 발표되고 1990년 6월 『조선예술』(통권 402호, 14~24쪽)에 재수록된다. 텍스트가 특집 형식으로 재수록된 것은 ‘소식 : 단막극 《우리 새 세대》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연구모임 진행’이 그 이유가 된다.

* 특집 : 단막극 《우리 새 세대》- 평안북도예술단 창조

희곡 : 《우리 새 세대》, 라성덕, 14~24쪽

평론 :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김기욱, 33~35쪽.

창작·창조수기 :

: 『새 세대에 대한 나의 관점』, 라성덕, 36쪽

: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창조의 열망을 안고』, 창작창조과장 리일현, 37~38쪽

: 『작품의 양상문제와 연출형상』, 배우 박항일 39쪽

: 『산 연기와 체험세계』, 배우 신순영, 40쪽

: 『운철과 나』, 배우 신금철, 41쪽

반향 : 『단막극 《우리 새 세대》를 시청하고』, 43~44쪽

소식 : 단막극 《우리 새 세대》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 진행, 13쪽

표지 : 단막극 《우리 새 세대》 중에서, 1쪽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새 세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창조’²⁷⁾의

1986년 3월 27일에서 28일까지 열린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 6차 대회 직후, 김정일이 ‘문학예술부문 일꾼들과 한 담화’, 곧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86. 5.17)를 발표한다. 이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을 중앙위원회에 설치하면서 예술영화 ‘《보증》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1987. 3.26)’, 예술영화 ‘《도라지 꽃》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1987.9.24)’에 이어서 ‘단막극 《우리 새 세대》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1990.6)을 구체화 한다. 《보증》(1987, 2부작)은 대흥단창작단에 의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숨은 영웅형상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도라지 꽃》(1987)은 이춘구의 시나리오, 조경순의 연출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서 ‘참다운 조국애를 가진 주체형의 인간에 대한 진실한 형상을 한 예술영화’라는 점에서, 《우리 새 세대》는 ‘새 세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 창조를 한 단막극’이라는 의미에서 그 연구 모임이 설치된 것이다.

27) 이에 관해서는 1990년 전후로 하여 북한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중요한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리현순, 「새 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자」, 『조선문학』(’83.10), 37~40쪽

박용학, 「청춘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조선문학』(’88.7), 70~74쪽

리동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작가」, 『조선문학』(’90.1), 38~41쪽

윤상현, 「90년대 인간의 성격」, 『조선문학』(’90.7), 48~53쪽

정우송,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 해명」, 『조선문학』(’90.11), 43~47쪽

최언경, 「90년대 새로운 성격의 탐구를 위하여」, 『조선문학』(’91.1), 15쪽

류 만, (작가연단)「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91.1), 38~42쪽

김정웅, (작가연단)「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조선문학』(’91.3), 41~43쪽

최언경, (작가연단)「시대정신의 진실한 구현과 90년대 성격창조문제를 두고」, 『조선문학』(’91.5), 61~64쪽

김해월, 「우리 시대 여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조선문학』(’91.7), 65~70쪽

오춘식,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이상에 대한 형상문제」, 『조선문학』(’91.11), 30~34쪽

박춘택, 「청년전위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업」, 『조선문학』(’92.3), 28~30쪽

김해월, 「농촌 새 세대청년들의 성격창조에 바쳐진 작가의 사색과 탐구」, 『조선

실체가 문제이다. 그 성격창조는 주인공 윤철과 정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 세대가 ‘낙원의 행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선군사상을 이념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새 세대의 이러한 형상은 동시대 북한의 체제이데올로기와 그 문학예술적 형상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어지는 동시대 북한의 체제이데올로기를 형상화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텍스트는 동시대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IV. 결론

본고는 라성덕의 《우리 새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선군사상을 연결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조 및 의미구조의 실체를 밝혀본 바,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줄거리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새 세대들이 약혼에 이르는 과정을 형상화 하고 작품이다. 곧 텍스트의 형상은 새 세대들과 그 세대들의 생활 모습이다.

둘째, 텍스트는 세대 구분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작품의 컨텍스트(사회적 연관 의미)로 설정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구 세대와 새 세대의 생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셋째, 구 세대와 새 세대 간의 공통인물로 ‘군인’을 설정하여 텍스트는

문학』(’93.5), 62~70쪽

머리글, 「혁명의 1시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조선문학』(’93.7), 4~5쪽

표지구호, 「청년들은 일심단결로 위대한 한별동지를 받든 청년 공산주의자들처럼 우리 청년들의 운명이신 우리의 친근한 최고사령관동지를 일심단결로 받들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조선문학』(’93.8), 표지

김정일과 당과 새 세대를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묶고 ‘전세대들이 가꾸어 놓은 꽃밭에서 꿀만 빨아먹는 벌나비, 그런 벌나비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느’, 현실과 싸우는 윤철과 정옥의 운명을 형상화 하고 있다. 텍스트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서로의 결혼과 운명을 맡기고 혁명적으로 살아가고 싸우는 윤철과 정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인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의 체험자로 형상하는 선군혁명문학에 가까이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구 세대와 새 세대 간의 차이를 향락에 두고 있지만, 텍스트는 윤철과 정옥 간의 이념적 약혼을 통하여 새 세대를 단순히 자기 행복을 차는 타산적인 향락세대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 세대의 사회주의 건설정신을 이어받아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개척하려는, 해야 하는 것으로 훈육하고 있다.

다섯째, 텍스트에서 극적 지향 공간은 ‘고향농촌’인 바, 윤철은 ‘군사복무가 끝나면 농산기사가 되어 우리군에도 벼마다 설레이게 하리라는 꿈’,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겠다던 그 꿈을 안고 살아갈 곳이며, 정옥은 ‘낙원의 행복’, ‘제 생각부터 하는 버릇’, ‘직업, 재산, 인물, 그런 타산’을 버리고 ‘일생이 가시덤불이라고 해도 즐거울’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향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윤철과 정옥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묵묵히 받쳐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애국자’이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모와 실천적 모범’ 인물’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고향농촌의 극적 공간지향성을 통하여 동시대 숨은 영웅을 형상화 하고 있다.

여섯째,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어지는 동시대 북한의 체제이데올로기를 형상화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텍스트는 ‘새 세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 창조를 한 단막극’으로서 동시대 북한의 체제이데올로기와

그 문학예술적 형상에 일치하고 있으며, 그 체제의 변화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라성덕, 《우리 새 세대》, 인민성, 조선민족제일주의, 혁명문학 예술, 선군사상, 선군혁명문학예술, 숨은 영웅형상 문학예술, 단막극

참고문헌

1. 자료

『1989년 성과 문학작품집』, 문예출판사, 1989.

라성덕, 《우리 새 세대》, 『조선예술』(통권 402호), 1990.6, 14~24쪽.

『조선예술』(통권 402호, 1990.6)의 관련목차

* 특집 : 단막극 《우리 새 세대》- 평안북도예술단 창조

희곡 : 《우리 새 세대》, 라성덕, 14~24쪽

평론 :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김기
욱, 33~35쪽.

창작·창조수기 :

: 「새 세대에 대한 나의 관점」, 라성덕, 36쪽

: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창조의 열망을 안고」,
창작창조과장 리일현, 37~38쪽

: 「작품의 양상문제와 연출형상」, 배우 박항일 39쪽

: 「산 연기와 체험세계」, 배우 신순영, 40쪽

: 「윤철과 나」, 배우 신금철, 41쪽

반향 : 「단막극 《우리 새 세대》를 시청하고」, 43~44쪽

소식 : 단막극 《우리 새 세대》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
진행, 13쪽

2. 논저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강 진, 『주체 극문학의 새 기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김일성, 「사회주의체제강화 발전(신년사)」, 『로동신문』, 1991.1.1

김정웅, (작가연단)「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조선

문학』('91.3), 41~43쪽.

김정웅, 이기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 : 문예학 3』, 사회과학출판사, 1996.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문화체육부, 1995, 361~427쪽.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1986. 5.17

김정일,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공에 토대하여 문학 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준규, 『피바다식 가극의 방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4.

김해월, 『농촌 새 세대청년들의 성격창조에 바쳐진 작가의 사색과 탐구』, 『조선문학』('93.5), 62~70쪽

김해월, 『우리 시대 여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조선문학』('91.7), 65~70쪽

류 만, (작가연단)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91.1), 38~42쪽.

리동수,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작가』, 『조선문학』('90.1), 38~41쪽.

리동원, 『문학개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리수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령도사 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리현순, 『새 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자』, 『조선문학』('83.10), 37~40쪽.

머리글, 『혁명의 1시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조선문학』('93.7), 4~5쪽.

박용학, 『청춘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조선문학』('88.7), 70~74

쪽.

박춘택, 「청년전위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업」,
『조선문학』(92.3), 28~30쪽.

박현중 외, 「김정일 시대의 북한정치체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4-11,
2004, 35~48쪽.

사 설, 「위대한 선군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자」, 『로동
신문』, 2003.1.1

오춘식,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리상에 대한 형상문제」, 『조선문
학』(91.11), 30~34쪽

위찬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공산주의자적 사상
개조운동」, 『근로자』·454(80.2), 57~58쪽.

윤상현, 「90년대 인간의 성격」, 『조선문학』(90.7), 48~53쪽.

정성무, 『시대와 문학 예술 형태』, 문예출판사, 1988.

정우송,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 해명」,
『조선문학』(90.11), 43~47쪽.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축하문 : 조선작가동맹 제 3차 대회 앞」, 『조선
문학』·388, 1980.2, 9~12쪽.

최언경, (작가연단) 「시대정신의 진실한 구현과 90년대 성격창조문제를
두고」, 『조선문학』(91.5), 61~64쪽.

최언경, 「90년대 새로운 성격의 탐구를 위하여」, 『조선문학』(91.1), 15쪽.

표지구호, 「청년들은 일심단결로 위대한 한별동지를 받든 청년 공산주의
자들처럼 우리 청년들의 운명이신 우리의 친근한 최고사령관동
지를 일심단결로 받들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조선문학』(93.8), 표지.

한중모,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1.

김성수, 「김정일 시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27,

-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4, 206~230쪽.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 민병욱 편저, 『북한 연극의 이해』, 삼영사, 2001.
- 오일환, 「북한의 선군정치의 현황과 쟁점 분석」, 『亞太 쟁점과 연구·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
-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8, 29~30쪽.
-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 정용하 외,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정치쟁점』,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 최 명 편저, 『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5.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편,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소련 콤 아카데미 편집부 엮음, 『희곡의 본질과 역사』 (김만수 역), 제 3 세계문학사, 1990.
- 구 센터, 2006.4, 95~118쪽.
- 질 질라르, 『연극이란 무엇인가』, (윤학노 역), 고려원, 1988.
- V.Klotz, 『현대희곡론』 (송윤섭 역), 탑출판사, 1981.

<Abstract>

A Study on La Sung Duk's *Our New Generation*

Min, Byung-Wook

This study says what kinds of forms and meaning structures of La sung duk's play *Our New Generation* are. The result come out as follows.

1) The Text is a imaging work that is a process which new generation meets and come to an engagement.

2) The Text is to show between old and new generation's life style through completing socialist system's construction on the basis of social situation.

3) The Text is to express the younger generation's life forms whose is revolutionary living with depending on social and political creature which takes care of their marriage and destiny. By this mean, the text come to the spirit of pre-military revolution literature.

4) The Text does not criticise new generation, so it called, to pursue enjoyment but regard them as successor who is trying to renovate the first priority of the chosun nation with socialism construction sprit of the old generation.

5) The Text is imaging a contemporary hidden hero through the dramatic space inclination of hometown.

6) The Text is representing ideology of North Korea and the form of the literature and Art as an one-act drama that is the beautiful

character creature of the new generation people.

Key Words : La sung duk, *Our New Generation*, revolution literature,
hidden hero, The superiority of Chosun people,
Military-First politics, Military-First revolution
literature